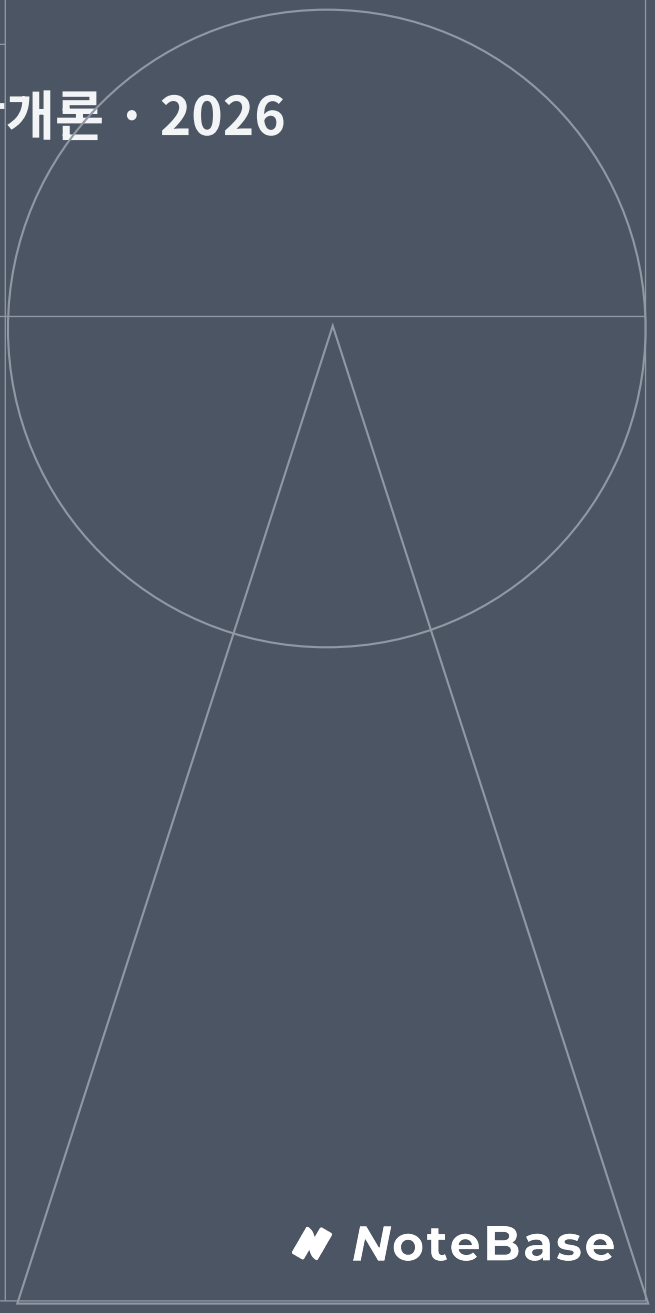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6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6

문 1. 어느 기업에서 현재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는 A가 퇴직 후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 중 기회비용에 해당하지만 회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재료비 2,000만 원

② 현재 연봉 4,000만 원

③ 카페 임대료 4,000만 원

④ 종업원 인건비 3,000만 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카페 창업을 위해 퇴직하면 포기하게 되는 연봉 4,0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다. 실제로 지급하는 돈은 아니므로 회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창업을 선택하면서 잃는 소득이므로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개념 구분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는 최선의 대안의 가치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을 판단할 때는 실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얻었을 수익인 암묵적 비용도 고려한다. 회계비용은 이 중 **명시적 비용**을 반영한다.

A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연봉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하여 카페를 운영하면 그 소득을 포기한다. 이는 A 자신의 노동을 카페에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이다. 카페 운영을 위해 외부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므로 회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료비 2,000만 원, 카페 임대료 4,0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3,000만 원은 각각 재료·점포·노동을 사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다. 이들은 기회비용에도 포함되지만 회계비용에도 포함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비용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2. 어느 한 해 A국의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은?

◯ 농부가 밀을 경작해 제분업자에게 30억 원에 판매했다.
◯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어 제빵업자에게 22억 원, 국수업자에게 18억 원에 판매했다.
◯ 제빵업자는 빵 판매로 40억 원의 매출을, 국수업자는 국수 판매로 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① 75억 원
② 105억 원
③ 115억 원
④ 145억 원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부가가치는 각 생산 단계의 판매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뺀 금액**이다. 밀과 밀가루의 가치를 중복해서 더하지 않으므로, 전체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물인 빵과 국수의 판매액 합계인 75억 원이다.

계산 과정

부가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더한 가치로,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재 투입액을 빼서** 구한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된 판매액과 중간재 구입액을 이용하며, 금액의 단위는 모두 억 원이다.

농부: 밀 판매액은 30억 원이다. 제시된 거래에서 농부의 중간재 구입액은 없으므로, 농부의 부가가치는 30억 원으로 계산한다.

제분업자: 밀가루 판매액은 22 + 18 = 40억 원이고, 중간재인 밀 구입액은 30억 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40 − 30 = 10억 원이다. 밀가루 판매액에 포함된 **밀의 가치를 차감**해야 농부가 창출한 가치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제빵업자: 빵 판매액 40억 원에서 밀가루 구입액 22억 원을 빼면, 부가가치는 40 − 22 = 18억 원이다.

국수업자: 국수 판매액 35억 원에서 밀가루 구입액 18억 원을 빼면, 부가가치는 35 − 18 = 17억 원이다.

전체 부가가치의 합은 30 + 10 + 18 + 17 = 75억 원으로, ①의 75억 원에 해당한다. 앞 단계의 중간재 판매액과 다음 단계의 중간재 구입액이 서로 상쇄되므로, 최종 생산물인 빵과 국수의 판매액을 더한 40 + 35 = 75억 원과도 같다.

NoteBase

문 3. 통화당국이 완화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채를 매입한다.
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ㄷ.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할인율을 올리면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져 **대출과 통화 공급을 억제**한다.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보기별 해설

통화 완화정책은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정책이다.

ㄱ. O: 통화당국이 국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자금이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본원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여 은행의 대출과 예금통화 창출 여력이 커지므로 완화정책에 해당한다.

ㄴ. X: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중앙은행에서 재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이를 인상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려는 유인이 줄어 대출과 통화 공급이 억제된다. 따라서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정책이며, 완화정책을 시행하려면 재할인율을 **인하**해야 한다.

ㄷ. O: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인하하면 같은 예금액에 필요한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 여력이 커지므로 완화정책에 해당한다.

완화정책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정부가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물품세를 폐지할 때, 상품 거래량과 시장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상품 거래량: 감소, 시장균형가격: 상승

② 상품 거래량: 감소, 시장균형가격: 하락

③ 상품 거래량: 증가, 시장균형가격: 상승

④ 상품 거래량: 증가, 시장균형가격: 하락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물품세를 폐지하면 세금 부담이 사라져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변하지 않으므로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상품이 거래된다.

대응 관계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자에 대한 물품세 폐지는 같은 판매가격에서 공급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각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수량이 늘어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곡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품 거래량: 증가. 종전 균형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져 가격이 내려간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이 늘어나며, 새로운 균형에서는 **종전보다 많은 수량**이 거래된다.

시장균형가격: 하락.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 수요곡선과 새로운 공급곡선은 **더 낮은 가격**에서 만난다. 여기서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가 지급하는 가격이며, 공급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과 구별해야 한다.

상품 거래량 증가와 시장균형가격 하락을 연결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5.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할인채(discount bond)를 구입할 때, 이 채권의 현재가치는?

◯ 만기: 1년
◯ 액면가: 11,000원
◯ 만기수익률: 10%

① 8,000원
② 9,000원
③ 10,000원
④ 11,000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할인채는 중간 이자 지급 없이 만기에 액면가를 받으므로, **만기 금액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다. 1년 뒤 받을 11,000원을 10%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10,000원이다.

계산 과정

만기 현금흐름: 할인채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 채권에서 받을 금액은 1년 뒤의 11,000원이다.

할인 관계: 현재가치를 P, 만기수익률을 r이라고 하면, 만기가 1년이므로 $P(1 + r) = 11{,}000$이다. 이는 현재 투자한 금액에 1년간의 수익을 더한 값이 만기 수령액과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가치는 **만기 금액을 1 + 만기수익률로 나눈 값**인 $P = \frac{11{,}000}{1 + r}$이다.

현재가치 계산: r = 0.10을 대입하면 $P = \frac{11{,}000}{1.10} = 10{,}000$원이다. 현재 10,000원을 투자하여 1년 뒤 11,000원을 받으면 수익 1,000원이 투자금의 10%가 된다. 계산한 현재가치 10,000원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다음과 같은 놀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어느 마을에 24시간 무료 개방된 놀이터가 있다.
◯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①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②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③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다.
④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4시간 무료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없다**. 이용자가 적어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경합성도 없다**.

핵심 풀이

배제성은 특정 사람을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이다. 사례에서는 놀이터를 24시간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합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나 편익을 줄이는 성질이다. 이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주어졌으므로,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경합성이 없다. 놀이터가 혼잡해 서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경합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사례에는 그러한 혼잡이 없다.

이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놀이터는 주어진 조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NoteBase

문 7.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국과 B국에서 의류와 반도체를 1단위씩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표로 나타내었다.

	의류	반도체
A국	2명	1명
B국	3명	6명

A국의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가)]단위이고, B국의 반도체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나)]단위이므로 반도체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다)]국이다.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A국과 B국은 의류와 반도체만 생산한다)

① (가): 0.5, (나): 2, (다): A
② (가): 0.5, (나): 2, (다): B
③ (가): 2, (나): 0.5, (다): B
④ (가): 2, (나): 0.5, (다): A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은 그 생산에 쓰는 노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의류의 수량**이다. A국은 의류 0.5단위, B국은 의류 2단위를 포기하므로,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이 반도체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NoteBase

계산 과정

표의 수치는 각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다.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두 재화만 생산하므로, 반도체 생산에 노동을 쓰면 그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의류를 포기한다. 따라서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은 **반도체의 단위당 필요 노동량을 의류의 단위당 필요 노동량으로 나눈 값**이며, 의류 수량으로 표시한다.

(가) A국: 반도체 1단위에 노동 1명, 의류 1단위에 노동 2명이 필요하다. 반도체에 투입한 노동 1명으로는 의류를 $\frac{1}{2}$ = 0.5단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은 의류 0.5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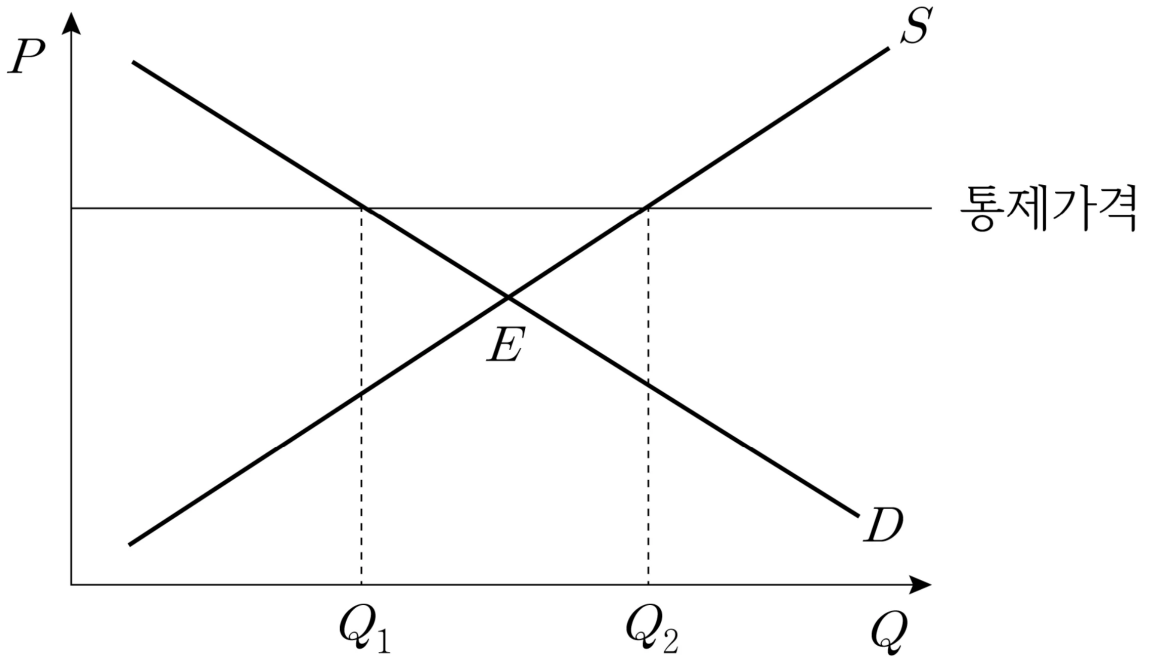
(나) B국: 반도체 1단위에 노동 6명, 의류 1단위에 노동 3명이 필요하다. 반도체에 투입한 노동 6명으로는 의류를 $\frac{6}{3}$ = 2단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은 의류 2단위이다.

(다) 비교우위 국가: 같은 재화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진다. 반도체 1단위를 생산하면서 A국은 의류 0.5단위를, B국은 의류 2단위를 포기하므로 반도체 생산의 비교우위는 A국에 있다.

따라서 (가)는 0.5, (나)는 2, (다)는 A이며,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가격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S는 공급곡선, D는 수요곡선, E는 균형을 나타낸다)



①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② $\overline{Q_1Q_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③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④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그림의 통제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이다.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는 줄고 노동공급은 늘어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통제가격이 균형점 E의 가격보다 높으므로, 그림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가격하한제를 나타낸다. 통제가격에서 수요곡선 D와 만나는 수량은 Q_1, 공급곡선 S와 만나는 수량은 Q_2이다.

① X: 임대료 규제는 통상 임대료의 최고 수준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이다. 실효성 있는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을 나타낸 이 그림의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② X: 통제가격에서 공급량 Q_2가 수요량 Q_1보다 크므로, 두 수량의 차이인 $Q_2 - Q_1$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초과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이다.

③ O: 노동시장에서 가격은 임금이며,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제이다. 그림처럼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량은 Q_1로 줄고, 일하려는 노동공급량은 Q_2로 늘어난다. 그 차이만큼 **일하려 하지만 고용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겨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④ X: 최저임금 적용으로 임금이 오르고 고용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노동자는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NoteBase

문 9. 물가가 고정된 단기 폐쇄경제하의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IS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LM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워진다.

③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④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크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에 가까워진다**. 소득 증가로 늘어난 화폐수요를 작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화폐수요 감소로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IS-LM 모형은 가로축에 국민소득, 세로축에 이자율을 나타낸다.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아래의 기울기와 정책 효과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를 비교하며, 정책 효과는 같은 규모의 확대정책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① O: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면 작은 이자율 하락에도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투자 증가는 총수요와 균형 국민소득을 늘리므로, IS곡선상에서 **작은 이자율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소득 변화가 커진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져 수평에 가까워진다.

② X: 화폐공급과 물가가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수요가 늘어난다. 화폐시장이 다시 균형을 이루려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화폐수요를 줄여야 한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작은 이자율 상승으로도 필요한 화폐수요 감소가 이루어지므로, LM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에 가까워진다**.

③ O: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화폐공급이 늘어나 LM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늘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폭이 크므로**, 같은 통화량 증가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④ O: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에 따른 확대재정정책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을 늘린다. 이때 소득 증가로 화폐수요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 일부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LM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폭이 작아 **민간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약해지므로**, 재정정책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커진다.

NoteBase

문 10. 기술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②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③ 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이 일정할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자본의 평균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④ 인구증가를 고려한 경우에는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순한계생산물(MPK−감가상각률)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황금률 자본량은 정상상태에서 1인당 소비를 가장 크게 만드는 수준이다.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자본을 한 단위 늘려 얻는 한계생산물이 감가상각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본 유지 필요량을 합한 값과 같아지므로, **순한계생산물은 인구증가율과 같다**.

선지별 해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자본량을 $k = K/L$, 1인당 생산량을 $y = f(k)$라 한다. 저축률은 s, 인구증가율은 n, 감가상각률은 δ로 표시한다. 정상상태는 투자로 감가상각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본 유지 필요량을 충당하여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다.

① O: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생산량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한다. 즉 $F(tK, tL) = tF(K, L)$이다. 이는 자본과 노동을 함께 늘릴 때의 성질이며, 노동을 고정하고 자본만 늘릴 때 나타나는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과 양립한다.

② O: 황금률 자본량은 가능한 정상상태들 중 **1인당 소비가 최대가 되는** 자본량이다. 정상상태에서는 1인당 투자 $(n + \delta)k$가 필요하므로 소비는 $c = f(k) - (n + \delta)k$이다. 생산량에서 자본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뺀 나머지가 소비이므로,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이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자본량을 찾는다.

③ O: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frac{\dot{k}}{k} = s\frac{f(k)}{k} - (n + \delta)$이다. 여기서 $\dot{k}$는 시간에 따른 1인당 자본량의 변화량이며, $\frac{f(k)}{k} = \frac{Y}{K}$는 자본의 평균생산성이다. 저축률·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이 일정하면 **자본의 평균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존 자본에 대한 투자 비율이 커져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높아진다.

④ X: 황금률에서는 자본 한 단위를 추가하여 얻는 생산 증가분과 그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증가분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MPK = n + \delta$이고, **순한계생산물은 인구증가율과 같다**. 즉 $MPK - \delta = n$이므로 '인구증가율보다 크다'를 '인구증가율과 같다'로 고쳐야 한다. 순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다면 자본을 더 늘려 정상상태의 1인당 소비를 높일 여지가 있으므로 아직 황금률 수준이 아니다.

NoteBase

문 11. 어느 기업의 볼펜 생산량이 9개일 때 평균비용이 6원, 10개일 때 평균비용이 5.9원이다. 10번째 생산하는 볼펜의 한계비용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원

② 5원

③ 5.9원

④ 6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10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9개에서 10개로 늘릴 때의 **총비용 증가분**이다. 각 생산량의 총비용은 54원과 59원이므로, 한 개를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5원이다.

계산 과정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생산량을 Q, 평균비용을 AC, 총비용을 TC라 하면 $TC = AC \cdot Q$로 총비용을 구할 수 있다.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이 문제의 총비용은 가변비용과 같다.

9개 생산 시 총비용: $6 \times 9 = 54$원이다. 이는 볼펜 9개를 생산하는 데 든 전체 비용이다.

10개 생산 시 총비용: $5.9 \times 10 = 59$원이다. 평균비용은 낮아졌지만, 생산량이 늘었으므로 총비용은 54원에서 59원으로 증가했다.

10번째 볼펜의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여기서는 **생산량이 1개 증가**하므로 $59 - 54 = 5$원이다. 따라서 10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은 5원으로,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②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성 문제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④ 적은 거래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직접 정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면 각자의 피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드는 **거래비용이 커지기 쉽다**. 거래비용은 협상 상대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합의를 체결·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일반적으로 협상이 용이하다.

② X: 코즈정리의 해결 방식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상 없이 손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교정 수단은 외부비용을 반영한 피구세이다. 유해한 생산·소비 자체에 보조금을 주면 그 활동이 늘어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이는 오염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구별해야 한다.

③ X: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오염을 배출할 권리나 오염 없는 환경을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고 무엇을 교환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코즈정리의 전제와 다르다.

④ O: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화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나 편익까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오염을 줄이는 비용보다 피해 감소의 이익이 크면, 당사자들은 그 이익을 보상금으로 나누면서 오염 감축에 합의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거래비용이 협상의 이익을 가로막지 않을 만큼 작으면** 이런 합의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시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내부시차	(가)	(나)
외부시차	(다)	(라)

① (가): 길다, (나): 길다, (다): 짧다, (라): 짧다

② (가): 길다, (나): 짧다, (다): 짧다, (라): 길다

③ (가): 짧다, (나): 길다, (다): 길다, (라): 짧다

④ (가): 짧다, (나): 짧다, (다): 길다, (라): 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통화정책은 결정·집행이 신속해도 **금리 변화가 민간 지출로 파급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재정정책은 **예산·입법 절차**가 오래 걸리지만,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총수요에 직접 반영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내부시차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때부터 정책을 집행하기까지의 시간이고, 외부시차는 정책 집행 이후 생산·고용 등 실물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다. 여기서는 재량적 안정화정책의 일반적인 시차를 비교한다.

(가) 통화정책의 내부시차: 짧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국회의 예산·입법 절차 없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짧다.

(나) 재정정책의 내부시차: 길다.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재량적으로 변경하려면 정책안을 마련하고 **예산 심의·의결이나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통화정책의 외부시차: 길다. 정책금리가 바뀌어도 시장금리와 대출 여건이 변하고, 가계와 기업이 소비·투자 계획을 조정한 뒤 생산과 고용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즉, **금융시장을 거쳐 민간 지출로 전달되는 과정** 때문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라) 재정정책의 외부시차: 짧다. 특히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매는 집행되면 **총수요에 직접 반영**된다. 통화정책처럼 금리 변화가 민간의 소비·투자 결정을 바꾸는 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적으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가) 짧다, (나) 길다, (다) 길다, (라) 짧다의 조합이며, ③의 배열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A국의 고용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
◯ 취업자: 2,500만 명
◯ 실업자: 50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ㄱ.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ㄴ. 고용률은 62.5%이다.
ㄷ. 실업률은 15%이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은 75%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3,000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15%가 아니라 약 16.7%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따라서 2,500만 명 + 500만 명 = 3,000만 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ㄴ. O: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취업자 2,500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으로 나누므로, 고용률은 $\frac{2,500}{4,000} \times 100 = 62.5\%$이다.

ㄷ. X: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4,000만 명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frac{500}{3,000} \times 100 \approx 16.7\%$이다. 따라서 '15%'는 '약 16.7%'로 고쳐야 한다.

ㄹ. O: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3,000}{4,000} \times 100 = 75\%$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X재 시장 내 독점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 X재의 시장수요곡선: $Q^D = 20 - \frac{1}{2}P$
◯ A의 평균비용곡선: $AC = Q^2 - 6Q + 24$
(단, Q^D는 시장수요량, P는 시장가격, AC는 평균비용, Q는 생산량이다)

① 2
② 3
③ 4
④ 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며, 주어진 조건에서는 그 생산량이 4이다. 이보다 더 생산하면 추가 생산에 따른 비용이 수입보다 커져 이윤이 감소한다.

계산 과정

1. 수요곡선과 한계수입: 독점기업 A가 시장 전체에 공급하므로 시장수요량 Q^D와 A의 생산량 Q가 같다. 수요곡선을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P = 40 - 2Q$이다. 총수입은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므로 $TR = PQ = 40Q - 2Q^2$이다. 이를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한 단위를 추가로 판매할 때 늘어나는 수입인 한계수입 $MR = 40 - 4Q$를 얻는다.

2. 총비용과 한계비용: 평균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당 비용이므로,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해야 총비용**이 된다. 따라서 $TC = AC \cdot Q$이고, $TC = Q^3 - 6Q^2 + 24Q$이다. 이를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인 한계비용 $MC = 3Q^2 - 12Q + 24$를 얻는다.

3. 이윤극대화 생산량: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생산을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고, 작으면 이윤이 감소한다. 두 값이 같아지는 조건은 $40 - 4Q = 3Q^2 - 12Q + 24$이다. 이를 정리하면 $3Q^2 - 8Q - 16 = 0$, 인수분해하면 $(3Q + 4)(Q - 4) = 0$이다. 해는 $Q = 4$ 또는 $Q = -\frac{4}{3}$이며, 생산량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Q = 4만 가능하다.

4. 극대화 여부와 결과: 0 이상 4 미만의 생산량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고, 4를 넘으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Q = 4에서 **이윤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4이며, 선택지 ③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케인즈(Keynes)의 유동성선호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을 배제한다)

① 소득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② 통화공급의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③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의 화폐수요에 의해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④ 화폐공급곡선은 화폐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통화공급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음 설명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문제의 조건대로 유동성함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① X: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늘어나므로 거래를 위해 보유하려는 화폐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통화공급이 일정하면 기존 이자율에서 화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균형이자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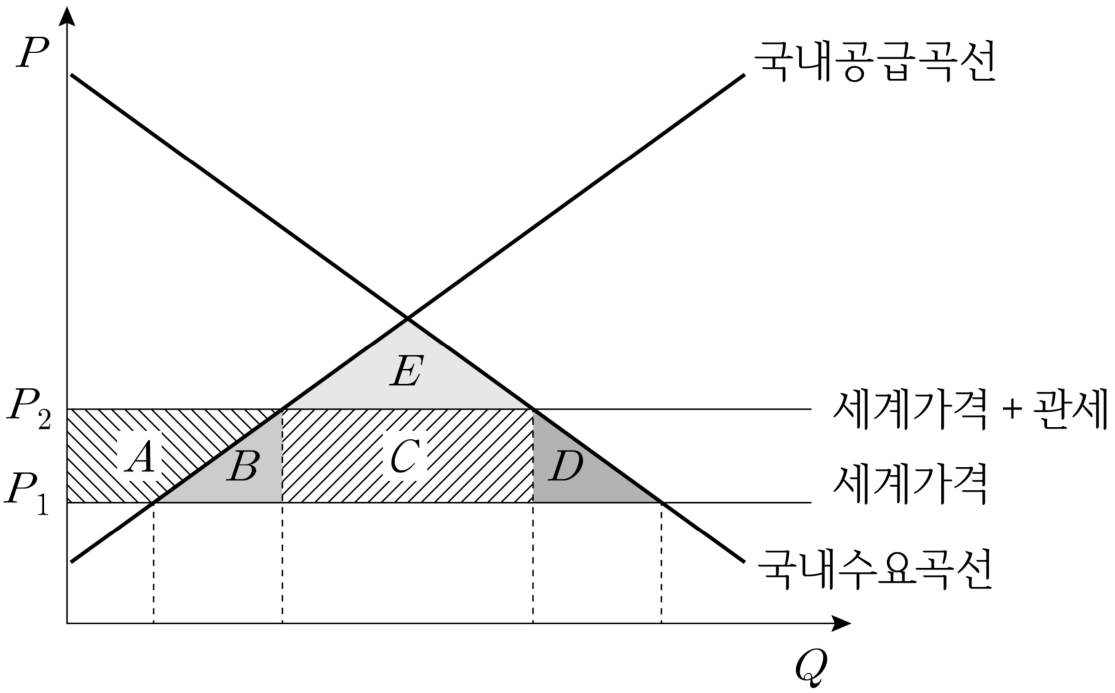
② O: 소득과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기존 이자율에서 화폐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남는 화폐로 채권을 사려 하므로 채권가격이 오른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균형이자율이 하락**한다.

③ O: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고려하여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하려는 수요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화폐 보유로 포기하는 이자수익이 줄고, 높아진 채권가격이 향후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화폐를 보유하려는 유인도 커진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화폐수요량이 증가**하여, 가로축에 화폐량, 세로축에 이자율을 놓은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④ O: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을 외생적으로 정한다는 가정에서는 **이자율이 변해도 화폐공급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가로축에 화폐량, 세로축에 이자율을 놓으면 화폐공급곡선은 중앙은행이 정한 화폐량 수준에서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NoteBase

문 17.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그림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을 의미하며, 국내가격은 관세부과 이후 P_1에서 P_2로 상승한다)



① A

② $B + D$

③ $B + C + D$

④ 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관세로 국내생산이 늘면서 생기는 **생산 왜곡 손실 B**와 소비가 줄면서 생기는 **소비 왜곡 손실 D**가 자중손실이다. A는 생산자에게, C는 정부에 이전되는 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의 순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도식 해설

소국개방경제는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를 부과해도 세계가격은 P_1로 유지되고 국내가격만 P_2로 상승한다. 그림에서 상승하는 곡선은 국내공급곡선, 하락하는 곡선은 국내수요곡선이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생산은 늘고 국내소비는 줄어 수입량이 감소한다. 자중손실은 소비자·생산자·정부를 합한 **사회 전체의 순잉여 감소**이다.

B — 생산 왜곡 손실: 국내공급곡선과 두 가격선 사이의 왼쪽 삼각형이다. 관세 때문에 추가로 생산되는 물량은 국내 한계생산비용이 세계가격 P_1보다 높다. 관세 전에는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던 재화를 국내에서 더 많은 자원을 들여 생산하므로, 그 **추가 비용**이 B만큼 발생한다.

D — 소비 왜곡 손실: 국내수요곡선과 두 가격선 사이의 오른쪽 삼각형이다. 관세로 소비를 포기한 물량은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세계가격 P_1보다 높지만 국내가격 P_2보다 낮은 부분이다. 세계가격으로 수입해 소비했다면 얻었을 **지불의사와 수입 비용의 차이**가 사라지며, 그 크기가 D이다.

A·C — 국내 경제주체 사이의 이전: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는 A+B+C+D만큼 감소한다. 이 중 A는 생산자잉여 증가로, C는 관세수입으로 돌아간다. C는 단위당 관세에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을 곱한 직사각형이다. 두 영역은 소비자가 잃은 잉여가 **국내 생산자와 정부에 이전**된 것이므로 자중손실에서 제외한다.

E는 P_2 위에 있는 영역으로, 이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비자잉여 감소에서 생산자잉여 증가와 관세수입을 빼면 B+D가 남는다. 따라서 자중손실은 두 삼각형 B와 D의 합이다.

NoteBase

문 18. 어느 경제의 통화공급 모형이 다음과 같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이 0.2,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0.1, 본원통화가 100조 원일 때, 통화공급은?

◯ 통화공급: $M = C + D$
◯ 본원통화: $B = C + R$
(단, C는 현금통화, D는 요구불예금, R은 지급준비금이다)

① 100조 원
② 200조 원
③ 300조 원
④ 400조 원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이 각각 요구불예금의 0.2배와 0.1배이므로, **통화공급은 본원통화의 4배**이다.
본원통화가 100조 원이므로 통화공급은 400조 원이다.

계산 과정

현금통화를 C, 요구불예금을 D, 지급준비금을 R이라 하자. 주어진 두 비율의 기준은 모두 **요구불예금 D**이므로, $C = 0.2D$, $R = 0.1D$이다.

본원통화 B는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따라서 $B = C + R = 0.2D + 0.1D = 0.3D$이다. 한편 통화공급 M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의 합이므로 $M = C + D = 0.2D + D = 1.2D$이다.

본원통화와 통화공급을 같은 D로 나타냈으므로, 두 식의 비율을 구하면 $\frac{M}{B} = \frac{1.2}{0.3} = 4$이다. 이는 **본원통화 1원당 통화공급이 4원**이라는 뜻이며, 이 비율을 통화승수라고 한다.

본원통화 100조 원에 통화승수 4를 곱하면 통화공급은 $4 \times 100 = 400$조 원이다. 이는 ④의 400조 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어느 경제의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4% 포인트 감소시켰을 때의 실업률(u_t)은?

◯ 필립스 곡선: $\pi_t = \pi_t^e - 2(u_t - 2)$
(단, π_t는 인플레이션율, u_t는 실업률, π_t^e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서 $\pi_t^e = \pi_{t-1}$라고 가정한다)

① 1%

② 3%

③ 4%

④ 6%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기의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으므로, 인플레이션율이 4%포인트 하락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기대치보다 4%포인트 낮다. 주어진 필립스 곡선에서는 이때 실업률이 기준인 2%보다 2%포인트 높아져 **4%**가 된다.

계산 과정

1. 인플레이션율 변화 확인: π_t는 당기 인플레이션율, π_t^e는 당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문제에서 $\pi_t^e = \pi_{t-1}$이므로 **당기의 기대치는 전기의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다. 인플레이션율이 전기보다 4%포인트 하락했으므로 $\pi_t - \pi_{t-1} = -4$이며, 따라서 $\pi_t - \pi_t^e = -4$이다.

2. 필립스 곡선에 대입: 주어진 식 $\pi_t = \pi_t^e - 2(u_t - 2)$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왼쪽으로 옮기면 $\pi_t - \pi_t^e = -2(u_t - 2)$이다. 앞에서 구한 차이를 넣으면 $-4 = -2(u_t - 2)$가 된다. 각 비율은 % 단위의 수치로 대입하며, $u_t - 2$는 **실업률이 기준인 2%를 초과하는 폭**을 %포인트로 나타낸다.

3. 실업률 계산: 양변을 −2로 나누면 $u_t - 2 = \frac{-4}{-2} = 2$이다. 이는 실업률 자체가 2%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인 2%보다 2%포인트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u_t = 2 + 2 = 4$이므로 실업률은 4%이며, 선택지 ③의 4%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X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X재 가격이 4% 오르고, 소비자의 소득도 6% 증가할 때, 이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은? (단, 수요(량)변화율은 가격변화에 따른 변화율과 소득변화에 따른 변화율의 합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1.5
◯ 수요의 소득탄력성: −0.5
(단, 위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관례에 따라 양수(절댓값)로 표기한다)

① 9% 감소
② 6% 감소
③ 6% 증가
④ 3%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격 상승으로 수요량이 6% 줄고,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므로 소득 증가로도 3% 줄어든다. 두 변화율을 더하면 수요량은 **9% 감소**한다.

계산 과정

가격변화에 따른 변화율: 수요의 가격탄력성 1.5는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1% 오르면 수요량이 1.5% 감소한다는 뜻이다. 제시된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변화에는 음수 부호**를 붙인다. 가격이 4% 상승할 때 수요량 변화율은 −1.5 × 4% = −6%이다.

소득변화에 따른 변화율: 수요의 소득탄력성 −0.5는 가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1% 증가하면 수요량이 0.5% 감소한다는 뜻이다. X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이므로 소득이 6% 증가할 때 수요량 변화율은 −0.5 × 6% = −3%이다.

전체 수요량 변화율: 문제에서 두 변화율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했으므로 −6% + (−3%) = −9%이다. 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가 모두 수요량을 줄이므로, 수요량은 9% 감소하며 ①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